

# 효율적인 낙농자조활동 자금을 위한 방안

한국유가공협회 부회장 김명길



그 동안 수년간에 걸쳐 꾸려오던 낙농자조금사업이 의무자조금으로 전환을 선포하고, 낙농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를 1차 개최하여 조직 작업에 착수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뜨거운 축하를 보냅니다. 아울러 정부 관계 인사 여러분의 지원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유가 넘쳐 남아도는 오늘날에는 낙농산업도 생산을 장려하는 시대는 옛날의 이야기지요. 이제는 공급과잉으로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과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위에 무역환경의 변화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대변화의 길목에서 낙농가 여러분의 응집된 의사로 자조활동을 스스로 해 나가려는 의지에 거듭 박수를 보냅니다.

「효율적인 낙농자조활동자금 사업을 위한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평소 생각해온바 작은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임의 자조금 활동 사업을 수년간 시행해오면서 실무적인 업무는 익숙해 졌다고 보겠습니다. 자금규모도 적었고 어찌면 단순홍보가 주된 활동이었다면 이제는 자금규모도 크게 확대되

고, 참여 폭도 전국적으로 조직 구성이 확대 된 만큼 과거 몸에 베어있던 업무 스타일과 생각하는 思考에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도약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았던 점은 승계 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폭넓은 활동을 위한 연구, 노력, 마케팅전략, 수급조절의 구체적 접근 활동 등으로 단순홍보위주에서 탈피하여 업그레이드 된 업무추진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타 기구의 성공사례 벤치마킹과 외국의 사례연구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 사업마다 철저한 기획과 효과 분석 평가 등 기업경영마인드를 접목하심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연간 사업계획 편성하고, 승인 되었다 하더라도, 매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를 분석함도 필수적이겠지요. 종합평가분석에서 예견된 평가결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업에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회원농가와 산업전체 주체의 뜻을 겸허하게 실천하려는 진솔한 업무수행은 투명한 업무수행이라는 찬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자조활동사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지도자들부터 자조활동의 합리적인 이념과 취지, 본질에 관해서 충분히 학습하고, 이해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편협 되고, 주관적인 인식에서 관리 운용될 경우, 분명 그 발전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포용성이 중요하고, 합리적 사고 위에서 관리 운영될 때 많은 찬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특정단체에 소속된 기구로 생각하거나 그러한 운영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회의석상에서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분위기에 대한 일침으로 검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낙농산업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생산, 가공, 판

매, 홍보에 크게 기여해 온 유가공업체 측에도, 특히 경쟁국보다 높은 원료가격과 소비부진 속에서도 연간 2,000~2,500억원의 광고비를 투입하면서 소비홍보에 기여해온 그간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에 인색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조 활동이 과감하며 훌륭하게 전개되어 우수소비가 촉진되고 국내 시장확대에 크게 기여되어 시장이 안정을 가하게 될 경우, 그 공은 낙농가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 낙농자조금사업에 대한 세가지 바램

낙농진흥회 전무 서극수



**우**선 낙농가 여러분의 오랜 숙원이던 낙농자조활동자금사업(이하 “자조금 사업”이라 함)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는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오늘이 있기까지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오신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낙농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 역시 낙농산업분야에 몸담은 한 사람으로서 가슴 벅찬 기쁨과 기대로 설레는 심정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낙농분야의 자조금 사업은 지난 '98년의 우유수급불균형이 그 계기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 소비부진 등으로 인하여 우유가 남

아돌아 우유 기본가격 인하문제가 거론되게 되었고, 이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우유가격 인하 보다는 생산자 스스로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에서 자조금 사업 시행계획을 제시했는데 아마도 이것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흔히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하는데 우리 낙농자조금 사업 역시 위기 속에서 찾아낸 기회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동안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자율적인 임의 자조금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운 일들을 반추해 볼 때 그 기회라고 하는 것도 결코 저절로 온 것이 아니라는 점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하겠다.